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62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1~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촉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중앙 벌벌의 관직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인 잔반이 나타나 양반층이 분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양반층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등 신분제로 인한 병폐가 지속되자, 양반이 아닌 상민들이 과중한 군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치를 점차 **떨어뜨렸다**. 즉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노비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 노비도 있었는데,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 연간인 1746년에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인 『속대전』을 통해 노비가 쌀 13석가량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안을 하였으며, 특히 신분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적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들을 제시했다. 실학자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문벌을 중시하는 신분적 차별을 조선 사회의 잘못된 인습이라고 생각하고, 신분보다는 능력에 맞게 업무나 직업을 가지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하여 신분제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 양반 세습제를 비판하거나 노비 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장은 17세기 유형원 이래로 많은 실학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분 제도 자체를 인습으로 바라보았지만,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대부분 양반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관찰하고 근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벌벌: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

(나) 조선 후기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신분제 개혁이 대표적이며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선구적인 학자들로는 유형원과 이익, 유수원이 있었다.

17세기 실학자인 유형원은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거제는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같은 학제에 따라 공부하게 한 후, 그중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노비 제도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다. 노비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우선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여 노비 신분의 세습을 점점 줄이고자 했다. 그리고 노비 제도 철폐를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노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유형원은 급료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공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18세기 전반의 실학자인 이익은 당시 조선에 살고있는 양반이 크게 늘어난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여, 『성호사설』에서 나라를 좁히는

병폐로 과거 제도, 노비 제도, 양반 문벌 제도, 계름 등을 언급하였다. 이익은 신분제로 인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놓고먹는 양반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양반도 관직에 오르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과 농사를 짓는 선비들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역전과를 주장했다. 또한 이익은 노비 신분의 세습과 노비 매매를 반대하면서, 양반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노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비종모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익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백성이 많아지면 군포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노비종모법이 국가 재정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에는 반대하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는 군역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리에게 군역을 지우지 말자는 입장은 유형원도 마찬가지였다.

실학자 유수원은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달랐다. 이익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했다면 유수원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 집중하였다. 유수원은 이용후생의 실현을 위해 양반 문벌의 타파를 주장하고 사농공상의 평등과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관제 개혁을 통한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 정착, 세금 부담의 합리화를 위한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 균세가 그것이다. 또한 유수원은 천인을 제외한 백성은 신분 고하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농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고 제안했다.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의 아이들이 4~5세가 되면 스승에게 교육받도록 하여 그 자질을 바탕으로 15세 이전에 사와 농공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반이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시대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여 사농공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인: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서 천인이 아닌 사람.

*군포: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배.

*이용후생: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사농공상: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르던 말.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 ②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 따른 각 계층의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각 계층이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조선의 신분제가 변화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학자가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을 살피고 있다.
- ④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분제 개혁안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후기에 군역을 피하기 위해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계층이 있었다.
- ② 이익은 노비 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노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③ 조선 후기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④ 유형원은 기존의 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이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험 방식을 제시하였다.
- ⑤ 유형원은 노비 제도를 폐지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약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8세기 실학자 정약용은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업을 선비, 농부, 공인, 상인, 과일과 채소 재배, 벼와 비단 짜기, 목재 등 자재 관리, 가축 기르기, 산나물 캐기 등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세유표』를 통해 부농, 상공업자 등의 신흥 서민층을 관료 체제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지만 우수한 농민과 공인을 행정직에 발탁하는 직업별 과거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아울러 양반은 국익을 위해 기존의 유학 외에 농업에 대한 연구, 기구의 발명, 원예와 목축 등의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 ① 사농공상을 나누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 유교적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다양한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양반에게 권유했음을 볼 때, 국익을 위해 양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 양반 중 잔반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부농과 상공업자 등의 신흥 서민층을 관료로 임명하려고 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실학자들처럼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국가가 직업을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을 볼 때, 조선 후기에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제도를 비판했음을 알 수 있군.

4. <보기>는 (나)를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나)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를 수집하여 글 내용 이해에 활용하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기>
 [자료 1] 유형원, 『반계수록』 중 일부
 학교에 들어간 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도록 한다. 공경의 자제도 서인이 될 수 있으며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
 [자료 2] 이익, 『성호사설』 중 일부
 선비를 농부와 하나로 합해 법으로 지도하고 농사짓는 선비 중 재덕이 있는 자를 초야에서 뽑아 천거한다면,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여 각자가 그 업에 안정될 것이다.
 [자료 3] 유수원, 『우서』 중 일부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양반은 국가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였으니, 지금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벼를 사립과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있다. 국가가 양반을 우대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손을 묶어 배를 주리게 하니, 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곤란케 하였다. 사농공상은 모두 같은 백성이다. 만일 백성의 아이들을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면 높고 낮을 것이 없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의 내용 정리하기>
 [A]

- ① [자료 1]을 통해 신분제에 따른 서열을 비판하고, 양반 신분의 세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유형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 2]를 통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익의 주장을 알 수 있다.
- ③ [자료 2]를 통해 농사를 짓는 선비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이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④ [자료 3]을 통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⑤ [자료 3]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사농공상으로 구별하자고 제안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5.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 상공업의 진흥과 봉건적인 인습의 개혁을 지향했던 북학과 실학자들은 신분제에 따라 양반이 노동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했다. 홍대용은 양반이라도 학식이 없어 관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양반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고먹는 양반을 나라를 갉아먹는 썸으로 인식한 박제가는 양반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농공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양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반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 국가가 피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양반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 ① 이익과 홍대용은 관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② 유수원과 박제가는 양반이 실생활과 관련된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③ 이익과 박지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양반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군.
- ④ 유형원과 박제가는 조선의 봉건적 인습을 개혁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군.
- ⑤ 유수원과 박지원은 이용후생을 위해 양반이 실학을 연구해 농민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면접관은 이번 채용에서 그를 떨어뜨렸다.
- ② 그런 행동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
- ③ 내 그림을 그의 그림에서 떨어뜨려서 전시했다.
- ④ 불안정한 미래 전망은 주가를 떨어뜨리게 된다.
- ⑤ 동생은 얼마 전에 사 준 신발을 벌써 떨어뜨렸다.